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음 8월 10일) 제21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 날, 시민들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초대대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발전 · 비핵화 주목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2018.9.18. PYONGYANG

4·27 정상회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 환영식 후 회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북미대화 중재·전쟁위협 종식 등 의제로

▶ 관련기사 3 · 16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1일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오후 3시45분께 시작해 오후 5시45분께 종료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오후 3시30분보다 15분 늦게 평양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정사에서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1일차 회담을 시작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 북측 배석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당초 공식회담 시간은 90여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30분가량 늦어

진 데에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환영식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나고 오전 11시17분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자 개별 오찬을 가진 뒤 정상회담에 임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북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도 지난 4월27일과 5월26일 판문점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모두발언을 공개했던 4·27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 등이다. 문 대통령 방문 둘째 날인 19일 오전에는 2일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나고 오전 11시17분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자 개별 오찬을 가진 뒤 정상회담에 임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북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도 지난 4월27일과 5월26일 판문점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모두발언을 공개했던 4·27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 등이다. 문 대통령 방문 둘째 날인 19일 오전에는 2일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원불교, 김주원 새 종법사 선출

원불교는 18일 김주원 영산선학대학교 총장(71·사진)을 새 종법사로 선출했다. 전주 출신인 신임 김 종법사는 지난 2012년 제14대 종법사 선출에서도 후보로 추천되는 등 교단 내에 신임이 투박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불교 수위단회는 이날 익산시 중앙총부에서 임시수위단회를 열고 3명의 종법사 후보 가운데 투표를 통해 김주원 총장을 제15대 종법사로 선출했다. 원불교는 11월 4일 중앙교의회에서 공식 대사식(취임식)을 봉행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국가균형 예타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 채택
송하진 도지사, 2년간의 공동회장 이임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송하진 공동회장)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 28%로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도지사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4대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건의를 끝으로 2년간의 회장직을 마무리했고 회장단의 추천으로 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재임기간 중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 201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관련 14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2017.6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축으로의 국가발전을 전환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2018.3월)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특별대책 마련을”

황의탁 도의원, 5분발언서

2018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300억(국특198억, 도비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6,207억의 0.7%에 불과하고, 2015년 지역내 총생산은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 소방서 119구급대 간격이 20-30km나 되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고 나눔과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인 새마을회관을 12개 시·군에는 모두 갖춰져 있으나 오직 무주군과 완주군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사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드러났다. 황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평균 소멸위험지수 0.91로 전북은 전남과 경북에 이어 꼴지에서 세 번째(0.58)이며 무주군 0.302, 장수군 0.288, 진안군 0.290, 순창군 0.285로 동부권은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에서 소멸고위험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동부권이 소멸되어 전북 소멸을 가속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20th

2018. 10.5(Fri) ~ 10.9(Tue)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